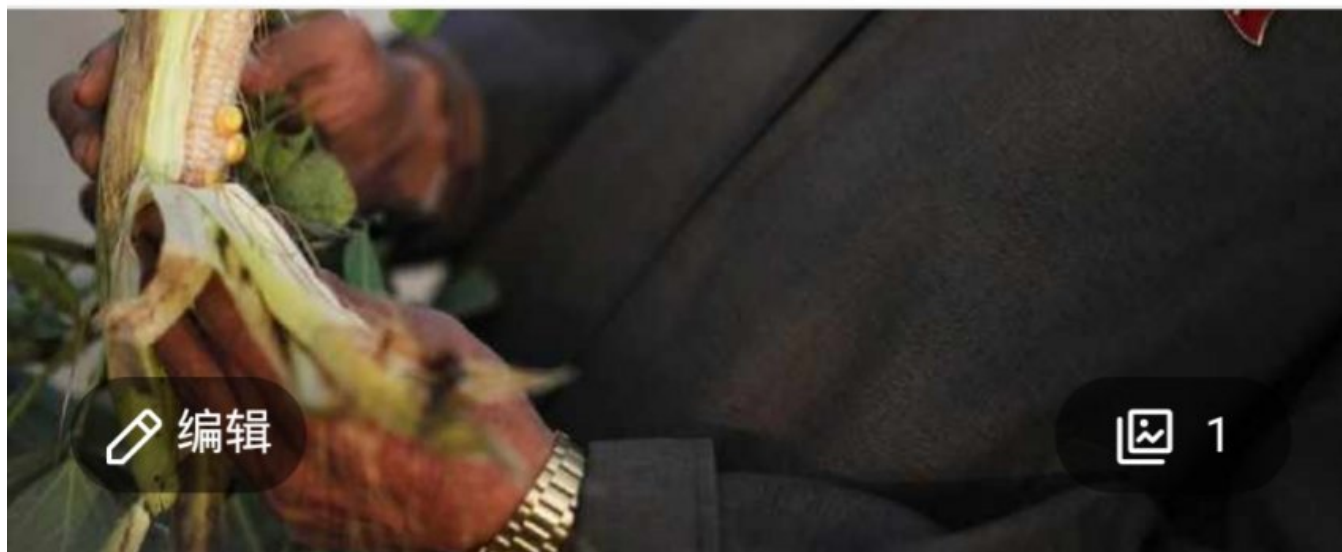



U+ 4:42    TALK •

LTE  42% 

 画面キャプチャを保存中...

百度百科



 编辑

 1

## 朝鲜大饥荒



**朝鲜大饥荒**（朝鲜语：조선기근），是自1994年至2004年之间在**朝鲜**发生的大面积饥荒灾难，**朝鲜**官方称之为“苦难行军”（고난의 행군）。由于**朝鲜**是一个封闭的国家，在事件中具体的死亡人数，难以知晓，而根据不同的文献估计，死亡人数约为24万至48万不等，死因大多为饿死或因

营养不良而病死<sup>[1]</sup>。

目录

TA

中文名 朝鲜大饥荒

外文名 조선기근

别名 苦难行军 (고난의 행군)



U<sup>+</sup> 4:42   TALK 

LTE  42% 

Café

부흥 카페



중국에서 인식하는

Ku nan xing jun 쿠 난 싱 쥘

고난의 행군(苦難行軍)

Chao xian da ji huang 차오 시앤 따 짜 황

조선대기황(朝鮮大饑荒)

중국에서는 「조선대기황」 (조선어:조선기근)으로 부르며,

1994년부터 2004년 사이에 조선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근재난이다.

조선관방에서는 「고난의 행군」이라칭한다.

조선(\*북한)은 폐쇄국가이기에, 사건중의 구체적인 사망자수를 알기 힘들며, 근거불명의 문헌자료에서는 사망자수가 약 24만에서 48만명까지 되는 등, 사인으로는 다수가 기아 혹은 영양실조에 의한 병사였다.



☰ 목록으로



U+ 4:42

LTE 42%

Café

부흥 카페



기근인구

조선의 기아인구는 90년대초에 약 420만명, 90년대 중기에는 700만명으로 증가한다.

후에 만성적인 식량위기를 겪으며 2003년에 이르러 국민의 33프로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처했다.

한국통일연구원은 2004년의 연구성과에서 1994-2004년 사이에 조선은 기근으로 인한 인구손실이 최소 23-39만에서 최대 40-48만 사이로 보고 있다.

한국으로 망명한 전 조선로동당 버서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, 1995년에 이르러 평안북도에 홍수가 나서 식량위기가 날로 심각해졌다고 한다.

거리에는 아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었고, 식량을 앓다투어 야기된 살인, 강도 사건들이 점차 늘어났다고 한다.



- dc official App